

다빈치 코드 (The Da Vinci Code) 추천사

저자 댄 브라운 (Dan Brown)

2003년 출간된 '다빈치 코드'는 제가 오랜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접한 작품입니다. 당시 2006년. 저는,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에 부임하기 위해 애쓰던 시기였죠. 낯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라,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라 마음이 편치 않았던 때, '다빈치 코드'는 저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소설을 읽어서인지, 아니면 작품 자체가 워낙 흥미진진해서인지, 단숨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댄 브라운의 작품이 한국에 출간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천사와 악마', '로스트 심벌', '인페르노'까지, 그의 작품은 저에게 꾸준한 즐거움을 주었죠. 참고로 '천사와 악마'는 '다빈치 코드'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출간된 작품입니다.

주인공 로버트 랭던(Robert Langdon)은 댄 브라운의 시리즈 소설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기호학 교수인 그는 박학다식하고 멋진 인물이지만, 동시에 고집스럽고 어린 시절 미키마우스 시계를 어른이 되어서도 착용하는 엉뚱한 면모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는 우연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호학을 활용한 추리 과정은 물론, 중세 유럽의 종교 단체와 그들의 상징,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사람은 정설의 내용도 좋아하지만 프리메이슨(Free Mason), 시온 수도회, 템플 기사단 등과 같은 비밀스런 종교단체와 이와 연관된 확인되지 않는 야사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데, 동양인의 시각에서 중세 유럽 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흥미 요소가 배치되어 있어, 지적 만족감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지루한 교과서와 야간 자율학습에 지친 신입생들에게, 그리고 캠퍼스 생활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찾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빈치 코드'는 주말과 저녁 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너무 재밌다'는 것이죠. '다빈치 코드'를 읽기 시작하면 댄 브라운의 다른 작품들도 연이어 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소설의 배경이 된 런던과 파리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항공권을

검색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여행을 가서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떠올리며 문화를 접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직접 여행을 가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소설 속 장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다빈치 코드'는 사실(Fact)이 아닌 소설(Fiction)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강원대학교 삼척부총장 박철우